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 (1764-1801)

윤지현 프란치스코는 1764년 전라도 진산에서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주교 서적을 오래 탐독한 끝에 신앙을 받아들였고, 형 윤지충 바오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791년에 형이 순교하자 고향을 떠나 가족들과 전라도 고산의 운동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천주교에 입교시켰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윤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나, “평소에 좋아하던 천주교 교리를 끊지 못하였고, 고질병처럼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오로지 만 번 죽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천당 지옥의 이치를 굳게 믿은 탓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는 의금부에서 마지막 문초를 받은 뒤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였으며, 다시 전주로 이송되어 1801년 10월 24일에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나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요한 12.1.12-13; 시편 24(23).9-10

파스카 축제 옛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소리, *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27)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태 26.14-27.66 (또는 27.11-54)

영성체송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섬기러 왔다

꽤 오래된 일이라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신부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축하 화분도 왔습니다. 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축 영전”이라고요. 너무 낮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화분을 보낸 사람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화분을 리본도 떼지 않고 제단에 놓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당 신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어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뒤따릅니다.

9장에서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9,35)라고 가르치십니다.

10장에서 세 번째로 당신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옆자리에 앉게 해 주시기를 청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4)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서도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들이 매번 수난과 부활의 예고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수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시니 제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자에게서는 그가 누구의 제자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당신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기는 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예고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의 수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부활 예고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으니깐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까? 수난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나 수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이 드러납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죽을 수 있습니까? ❶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교회헌장」 제35항

「교회헌장」 제35항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공의회는 그리스도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언자직은 당신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될 때까지 존속되는 종말론적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수행은 그분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는 성직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계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평신도들은 그분에 의해서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입어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의회가 참조하는 사도 2,17-18의 오순절 설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부여되 예언하리라는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이 에페 5,16과 콜로 4,5의 ‘시간(기회)을 잘 쓰라’는 언명에 따라 믿음과 바람으로 현재의 기회를 잘 살려 나가며, 로마 8,25의 언급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인내로 기다린다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이러한 희망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말고 어둠의 지배자들에 맞서 싸움으로써, 이 세상에 그 희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신약의 성사들과 평신도들의 역할을 견주어 설명합니다. 신약의 성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업적만이 아니라, 현세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생활과 사도직을 길러주고 종말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평신

도들도 신앙 생활과 신앙 고백을 결합시켜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알리는 복음 선포자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전하는 선포, 곧 “복음화”는 그것이 세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직자의 직무와 달리 특별한 징표와 효력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성사로 축성된 “혼인과 가정” 생활에서 신앙의 증거와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평신도 사도직을 수련하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모든 생활에 스며들어, 부부는 서로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기의 모범과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성사로 거룩하게 된 혼인과 가정은 평신도 예언자직이 잘 드러나는 장소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들_가톨릭신문 제공

평신도들은 현세의 일에 종사하면서 세상의 복음화에 힘써야 하며, 성직자가 부족하거나 박해로 교역이 방해를 받을 때 특별한 권한으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그들의 모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

예수님의 수난을 바라보는 일곱 개의 노래

사순 시기를 지내며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전례와 성가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한편의 음악이 이러한 묵상에 깊이를 더해 주기도 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주교좌의 정부 성당에서 열린 사순 음악회 역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진 디트리히 북스테 후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Membra Jesu Nostri)」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차례로 바라보며 수난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이끄는, 말하자면 '노래로 바치는 기도'와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 여운이 오래도록 깊이 남았습니다.

기도와 성가를 하나의 신앙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둘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악은 기도를 더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바치기 위해 기도문에 선율이라는 옷을 입힌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음악에서는 화려한 음악적 표현보다 그 바탕이 되는 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곡가는 가사가 지닌 영적 의미를 음악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며, 듣는 이 또한 선율 속에 담긴 말씀을 이해하려는 묵상의 태도로 음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가를 함께 부를 때뿐 아니라 들을 때에도 그 시간은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북독일 바로크 작곡가 디트리히 북스테후데가 1680년에 작곡한 이 작품은 일곱 개의 칸타타로 이루어진 수난 묵상곡입니다. 각각의 곡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지체를 차례로 바라보며 묵상을 이어 갑니다. 이 작품은 발, 무릎, 손, 옆구리, 가

슴, 마음, 얼굴이라는 일곱 부분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바라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곡 '발(Ad Pedes)'은 복음을 전하는 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신앙인의 자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곡 '무릎(Ad Genua)'에서는 주님의 자비 안에서 위로받는 영혼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세 번째 곡 '손(Ad Manus)'에서는 못에 찔린 손을 바라보며 수난의 상처를 묵상하게 합니다. 네 번째 곡 '옆구리(Ad Latus)'는 창에 찔린 상처를 바라보며 그 상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영혼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곡 '가슴(Ad Pectus)'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여섯 번째 곡 '마음(Ad Cor)'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곡 '얼굴(Ad Faciem)'은 청중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묵상 안에 머물도록 이끕니다. 이 작품을 들으며 우리는 수난의 장면을 음악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곡 「Ad Cor」에는 다음과 같은 아가서의 구절이 노래됩니다(아가 4,9).

Vulnerasti cor meum, soror mea, sponsa, vulnerasti cor meum. (너는 내 마음을 상처 입혔다,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너는 내 마음을 상처 입혔다. 라틴어 직역)

성주간을 지내며 이 음악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선율 속에 담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음악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

디트리히 북스테후데 Dietrich Buxtehud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 마음

Membra Jesu Nostri - Ad Cor





**교구
소식**

한마음 사계 피정 - 4월, 5월(대침묵 피정)

	4월	5월
일시	4/24(금)~26(주일)	5/15(금)~17(주일)
강사	김성우 이사악 신부(청주교구)	김경진 베드로 신부
주제	사랑을 만나다, 사랑을 살아가다	렉시오 디비나 묵상과 이냐시오 관상기도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4/10(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시메온의집 직원 모집

인원 여 1 명

분야 미화 및 주방

마감 채용시까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근무시간 주 40시간

우편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근무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58번길 228-9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2026 DMZ 평화의 길 - 도보 순례

날짜 4/10(금)~12(주일), 5/2(토)~3(주일)

회비 [2박] 15만원, [1박] 8만원

대상 초3이상 누구나 (8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주최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신청 ▶



의정부교구 제154차 ME주말

“48시간의 기적, ME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일시 4/17(금) 19시~19(주일) 17시

대상 부부(혼인 3년 이상, 종교무관), 성직자, 수도자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

문의 010-9504-0419 주말분과대표



기억합니다.

3월 31일은故 전승규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13주기입니다.



기억합니다.

4월 3일은故 신정순 베네딕토 신부의
7주기입니다.

특별헌금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지난 2월 8일, 신학생학비후원 특별헌금으로 138,332,366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성소국으로 보내져 신학생 학비 후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사 · 피정 ▶▶

평내 성당 떼제미사

평내 성당 떼제곡으로 봉헌하는 미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매월 둘째주일, 18시 떼제미사
장소: 평내 성당

부활 만나질 피정

일시: 4/11(토) 15시~20시
대상: 35세 이하 미혼여성 / 참가비: 2만원
문의: 010-4882-9674(선한목자예수수녀회)

ICPE청년피정- 하느님의 선물인 내몸

날짜: 4/12(주일), 19(주일), 25(토), 26(주일)
장소: ICPE합정센터
문의: 010-2804-6523, ICPE카톡 플친

자연과 함께 하는 사제·수도자 피정

날짜: 7/27(월)~8/5(수)
강사: 이영근 신부 / 장소: 제주 엠마오연수원
주제: 자연과 함께하는 엠마오 길
문의: 010-6462-041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과 함께
제주의 봄여행과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추자도 성지순례: 4/11(토)~14(화)
4/28(화)~30(목), 5/16(토)~19(화)
자연순례: 4/24(금)~26(주일)
한라산철쭉, 올레길: 5/2(토)~4(월),
5/8(금)~10(주일), 5/11(월)~13(수),
5/12(화)~14(목), 5/23(토)~25(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가정선교회 4월 피정

시간: 12:30~16:5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4/1(수) 마진우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4/11(토) 이상재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전인적인 치유피정:
4/18(토) 박현민 신부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불완전한 우리' 피정

대상: 40세 미만의 청년
장소: 미리내 성지 묵상외집
일시: 5/30~31(1박 2일), 12:30(식사 제공)
픽업: 평택역, 용인 시외버스터미널
문의: 010-5195-3217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 순례: 5/9(토)~11(월), 5/15(금)~17(주일)
6/19(금)~21(주일), 7/3(금)~5(주일),
7/10(금)~12(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5/4(월)~6(수), 5/29(금)~6/1(월)
6/4(목)~7(주일), 6/12(금)~14(주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혼인성소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신청: 다음카페, oh oh my half
문의: 010-3173-2665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주교와 함께하는 섬, 성지순례, 말씀초대
날짜: 4/11~13, 4/28~30, 5/23~5/25
장소: 성 이시돌피정의집 (주최: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구반장, 사목위원)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날짜: 5/14(목)~17(주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왜관수도원내)
비용: 42만원(1인 1실)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 010-4731-2468 최 안나

교육 · 모집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여성 장애인 이용자 모집

등록 장애인중 지적장애를 수반한 중증·중복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 충족
(성인 240점이상 / 아동 190점 이상)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인원: 4명
문의: 031-965-0028, www.haemil.or.kr

성체조배를 위한 8주 기도교육

일시: 4/18~6/6 매주(토) 10:30~13:30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4호선 미아역)
주제: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길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내용: 영성, 기도방법, 심리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일산합창단원 모집 - 혼성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연습: 매주(화) 19시, 아람누리(정발산)
문의: 010-9842-8818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4/13(월)~24(금)
전형: 5/15(금) 최양업홀
문의: 02-740-9876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2026 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날짜: 4/8(수)~6/11(목) (※ 3/23부터 선착순 접수)
장소: 서울대교구 교구청 및 영성센터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문화
접수: 문화학교 홈페이지 culture.catholic.or.kr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교육원 02-2258-8480

성경 안에서 치유 대피정

일시: 4/13(월) 10시~17시(점심무료제공)
강사: 송봉모 신부(강의),
이상희 신부(미사, 안수), 한영민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입	한국외방선교회	4/12(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11(토)~12(주일) (1박2일)	서울 성북동 수도원	010-6608-3217
	예수회	4/18(토) 15시	예수회 관구본부(서울 마포구)	010-2876-1540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수시	본원(경북 칠곡), 계산서원(대구)	010-3265-6219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등
일시: 매월 마지막주 (주일) 13:30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일산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자유곡)
문의: 010-4856-2596

2026년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모집: 영양조리반 / 업무: 전처리, 조리
근무: 08:30~17:30, 주5일 (변동근무)
문의: 031-840-0018 (내선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edoran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수업(회화, 여행영어 등)
주최: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문의: 053-593-1273

피에타스 가톨릭시니어싱어즈(알토,베이스)단원모집

현재 성가대 활동중이거나, 경험 있으신 교우
교구활동 및 음악미사 봉헌
장소: 매주(수) 7: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의정부교구 가톨릭국악합창단 단원모집

연습: 매주(월) 19:30, 일산 성당
활동: 의정부교구 신년하례미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회 및 미사와 교구 행사
문의: 010-4661-4192 (단장)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날짜: 4/6부터, 매주(월~토)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쿠나스오르간연구소
가톨릭신문사 신입 / 경력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신문 홍보광고
접수: 4/21(화)까지
문의: 홈페이지 office.catholictimes.org 참조



일본 성지순례

5/18(월) 일본 북해도 성지순례 4일
5/27(수) 일본 아키타 성모성지순례 4일
지도 신부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성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희년, 청년 이태리 성지순례

날짜: 7/20(월)~31(금) (8/1(토)도착)
장소: 로마, 아시시, 라베르나, 그렉치오, 피렌체 등
주제: 프란치스코에게 길을 묻다
문의: sfmayp@gmail.com

꽃동네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소주일 <찾아라!>

일시: 4/26(주일) 10시~16시
장소: 음성꽃동네사랑의연수원(점심도시락 지참)
대상: 유치부~일반부 / 단체접수마감 4/20(월)
문의: 형제회 010-5571-2516
자매회 010-9894-1973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 캐나다 성모성지(9박10일)
11월 / 멕시코&칸쿤 성모성지(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12(화)~22(금) 동부유럽 4국 (540만원)
6/8(월)~19(금) 성모발현지 (555만원)
6/23(화)~7/3(금) 이탈리아 (545만원)
7/3(금)~13(월) 조지아, 아르메니아 (499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26(화) 이탈리아 일주 전대사 수여(12일)
5/31(주일) 프랑스 일주12일 575만원(12일)
8/13(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2일)
9/7(월)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12일)
10/12(월) 동유럽 5개국 체독폴오형 (12일)
10/14(수) 프랑스 이탈리아 메주고리에(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6/9(화) 조지아, 아르메니아(10일, 450만원)
6/23(화)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5일, 160만원)
(장춘, 길림, 이도백하, 백두산, 용정, 연길, 도문)
7/7(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7/16(목) 제헌절 연휴, 9/14(월) 추석연휴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10/12(월)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신앙의 동반자
가톨릭 하상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톨릭 하상' 앱을 설치하세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DIocese of Uijeongbu

모집



청년 DMZ 평화의 길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2)
일정: 5/22(금)~25(월) 14시 [3박4일]
대상: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45세까지, 하루 20km 도보순례 가능)
인원: 선착순 160명(순례비 입금 순)
순례비: 5만원, 등록시스템 신청 → 순례비 입금 → 접수 완료
신청: 청소년사목국 등록시스템 people.uca.or.kr
문의: 031-850-1502 WYD 의정부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모임

청소년사목 교리교사 양성 윌레모임

날짜	시간	장소
4/11(토)	10시~12시	에파타 청년센터
4/18(토)		에피파니아 청년센터
4/25(토)		토평동 성당

대상: 의정부교구 교리교사 누구나
신청: 청소년사목국 등록시스템 people.uca.or.kr
문의: 031-850-1458 교리교사공통

제 17 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교육일정 3월 14일(토) ~ 10월 24일(토)

장 소 파주 박달산텃밭 (파주시 광탄면)

교육비 17만원 (실습밭 분양비 포함) | 우리 1005-804-525077
(재)천주교의정부교구

인 원 25명 (선착순)

문 의 생태환경위원회 031-850-1492

신 청 전화 접수 또는 QR 신청서 작성



교육 과정

- 3** 14일 - 개강 미사 및 오리엔테이션
21일 - 자연농 기초 & 밭 만들기(감자 파종)
28일 - 도시농부와 생태영성
- 4** 11일 - 우리에게 먹을 것이란 무엇인가
18일 - 들풀 이야기와 들풀 요리
25일 - 모종 심기와 작물 돌보기
- 5** 9일 - 도시농부와 기후위기
16일 - GMO 이야기와 생명다양성
30일 - 토종벼 손 모내기
- 6** 13일 - 모기 퇴치제 등 만들기
20일 - 감자 수확과 작물 관리
27일 - 가톨릭농민회 일손돕기
- 8** 22일 - 김장작물 파종과 작물 관리
- 9** 12일 - 도시농업과 24절기력
- 10** 24일 - 갈무리와 겨울작물 파종 / 수료미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똥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4월 1일 테오도라: 김영금
- 4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방성분, 허경희, 김복인, 백인순, 이강성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4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4월 봉성체
일 시: 4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4월 성시간
일 시: 4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 하절기 토요일 저녁 미사 시간 변경
동절기 동안 토요일 저녁 5시에 봉헌하던 저녁 미사를 하절기 4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저녁 7시로 변경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
오늘은 우리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성삼일 전례 안내

4월 2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성목요일 미사,현양제대 수난 감실 조배
4월 3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전례 (성지복구 특별 헌금)
4월 4일 (토) 파스카 성야	오후 8시	부활 성야 미사

※성삼일 동안에는 평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봉헌 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체별 수난 감실 조배 순서

시 간	단 체
22시 - 24시	성가대, 사목회
24시 - 07시	자유로운 시간 (시간이 되시는 분)
07시 - 08시	레지오
08시 - 09시	1구역, 2구역
09시 - 10시	3구역
10시 - 11시	4구역, 5구역

우리들의 정성(3/16 - 3/22)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7건	705,000원
주일헌금	1,034,000원

● 감사헌금

권원자	20,000원	오현주	50,000원
박성휘	30,000원		

화답송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